

해외서 'AI 생성물' 표기 논의 활발... 韓, 업계반발 등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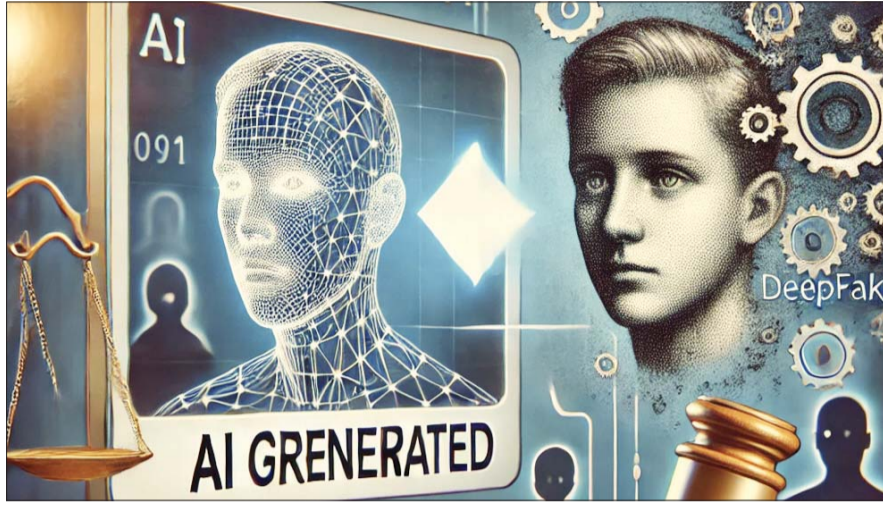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이미 도입
미국은 정부서 '의무화' 행정명령
한국, 논의는 하지만 '법제화' 아직
"법 제정 넘어 식별가능 기술 구축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앞다퉈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법제화를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의 주요국,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로 규제 강화

2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 제50조를 통해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관련 이미지.

히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AI 기술 제공자와 배포자가 AI 사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생성물 표기에 대한 일반법은 아직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공공기관에 딥페이크를 포함한 합성 콘텐츠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또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표시법안'을 비롯해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여러 법률안이 의회에 발의돼 있다.

◆한국, 법안 논의는 시작했지만 법제화는 지연

한국에서도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화는 아직 미완성 단계다. 국회입법조

사처는 최근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오정보 확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며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5건은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콘텐츠를 유통한 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AI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인 만큼, AI 기술이 초래할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딥

페이크를 포함한 AI 기술 악용 범주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계의 반발과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표기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표기 의무화가 기술 혁신과 상용화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생성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표기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법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콘텐츠 자동 식별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중지' 가치분 또 기각

법원 판결에 고려아연 주가 6.4%↑
영풍·MBK "기업가치회복에 최선"
고려아연 "경영권 빠르게 정상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치분 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배임행위로 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총법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1시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000원(6.43%) 오른 8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88만 9000원까지 오르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89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장 초반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가치분' 인용 우려에 7.65% 내린 76만1000원까지 떨어진 바 있어 하루 등락폭이 13%를 웃돌았다.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

사주 취득금지 가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 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진(왼쪽 3번째부터)노삼석·조현민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자사 현지 법인 ELS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노삼석·조현민,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경영'

현지 물류상황 확인, 직원들 격려

한진이 유라시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영 행보를 적극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진에 따르면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과 조현민 사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우즈베키스탄을 돌아보며 현지 물류 상황을 확인하고 고객사와 스킴십을 강화했다. 노삼석·조현민 사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한진의 현지 법인인 ELS(Eurasia Logistics Service)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지 물류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ELS 법인은 2010년 설립 이후 매출

과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유럽, 터키,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에서 국제 트럭킹 운송과 항공·철도를 활용한 포워딩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물류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지 물류 고객사들과 만남을 통해 협력 관계도 강화했다. 현지 물류 기업들과의 회동으로 중앙아시아 물류 비즈니스 동향을 파악하고, 한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포워딩 및 트럭킹 등 수입화물 운송 협업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HD현대로보틱스, 산업용 'U시리즈' 출시

'미래혁신기술박람회'서 4종 선보

HD현대로보틱스가 새 산업용 로봇 'U시리즈'를 출시한다.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 2024' (이하 FIX 2024)에서 U시리즈 4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FIX 2024는 로봇·미래모빌리티·인공지능·반도체 등 최신기술을 한자리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기술 박람회로, 국내외에서 약 45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FIX 2024에서 첫선을 보이는 HD현대로보틱스의 U시리즈는 기존 로봇 대비 무게와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작업 환경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U시리즈는 구조설계를 최적화하여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로봇의 자체 무게를 최대 12% 감량하고, 작업 시간을 최대 11% 단축했다. 이를 통해 생산라인 배치를 최적화하고 생산성

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한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다른 중소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최대 수준의 작업 변경을 제공, 넓은 작업 변경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큰 로봇을 구입해야만 했던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U시리즈는 아크용접, 핸들링 및 머신렌딩 분야에 최적화되어 자동차 제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 시설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HD현대로보틱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부터 사전 구매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 보증기간 연장, 부품할인, 특별할인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출시 이벤트

이통3사, 호텔 숙박권 등 경품 제공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오는 25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5성급 호텔 숙박권부터 명품 가방 등 각종 경품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T다이렉트샵에서 입고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구매 고객 중 30명에게 신라호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디럭스룸 숙박권을 제공하는 '럭셔리 호캉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에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한 고객은 T다이렉트샵을 통해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1월27일 개별 발표 예정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